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46호

2013년 6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 ①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 ② 본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 ③ 보호자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ATAC Accessibility Technical Assistant Center For The Disabled, etc.



HEADLINE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선거
후보 프로필 및 공약

5~9P



기호 1번
채종걸



기호 2번
이규달



기호 3번
김창환



기호 4번
류종춘



기호 5번
김광환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선거 5파전

채종걸 · 이규달 · 김창환 · 류종춘 · 김광환 입후보

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20일 선거 실시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종걸, 기호 2번 이규달, 기호 3번 김창환, 기호 4번 류종춘, 기호 5번 김광환 후보(왼쪽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7대 중앙회장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선거일정을 공고하고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김창환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전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 채종걸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김광환 전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이사(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이규달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전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장), 류종춘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회장 등 총 5명이 입후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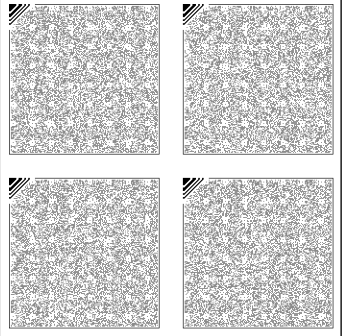
후보 등록 마감 다음날인 6월 5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후보자 및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이 진행됐으며 채종걸 후보가 1번, 이규달 후보가 2번, 김창환 후보가

3번, 류종춘 후보가 4번, 김광환 후보가 5번을 부여받았다.

이들 후보는 6월 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 선거는 6월 20일 서울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되며 선거권은 당연직 대의원 247명과 선출직 대의원 157명 등 총 404명에게 주어진다. <5~9면에 계속>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3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이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진행됐다.

“전국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 한자리에”

‘2013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교육’ 실시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리
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
협)가 5월 22일 부터 23일까
지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
서 ‘2013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장협 산
하 전국 16개 시·도협회 및
지회에서 민원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00여명의 실
무자들이 참가했다.

교육은 한국빈곤문제연구
소 김희성 상담·교육 실장
의 ‘사례를 통한 국민기초생
활의 이해’, 지장협 정연숙
여성정책팀장의 ‘변경된 복

지시책’, 김은정 CS 컨설턴
트의 ‘불만고객 응대법’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복지제도 개
선 및 건의사항’을 주제로 한
조별 분임토의 시간이 마련
돼 장애인복지제도가 나아
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졌다.

한편 지장협 김정록 중앙
회장은 교육 참가자들에게
“장애인들이 민원상담을 통
해서 생활 속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민원상담 실무자들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며 “항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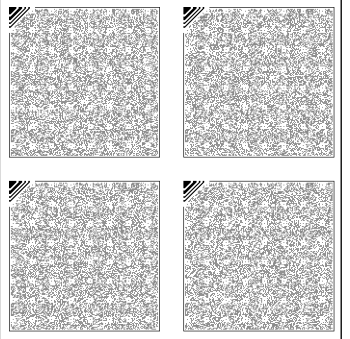
‘2013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교육’ 참가자들이 분임토의에 임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포항곰두리청년차량봉사대, 나들이 행사 진행

소리로 읽는 새보람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산하 포항곰두리청년차량봉사대(대장 최재용)는 5월 25일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중증장애인 10명이 함께해 양동마을, 교촌마을 등을 둘러보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조두희(지체장애 1급) 씨는 "집에만 머물다 이렇게 나들이를 나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니 즐겁다"며 "소중한 하루를 선물해준 봉사대원들에게 감사드린

다"고 전했다.

이에 최재용 대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곰두리청년차량봉

사대는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외에도 매년 장애인 가정집수리, 수능시험 수험생 무료수송, 포항시 장학금 전달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지역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협력

부산협회 · 부산과학기술대학 간호과, MOU 체결



부산협회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과의 산학협동업무협약식 모습.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광표, 이하 부산협회)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과(학과장 최길림)와 5월 21일 부

산과학기술대학교 회의실에서 산학협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부산협회 김광표 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지역 장애인들이 행사시 의료지원 및 간호봉사를 지원받을 수있게 됐다"며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

장애인 무료목욕탕 운영

차량 지원 서비스도 실시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함평군지회(지회장 박종관, 이하 함평군지회)가 장애인 무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함평군지회는 2011년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무료 목욕탕을 개장,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욕탕은 화요일과 수요일, 매주 2회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차량 지원 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함평군지회 박종관 지회장은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어 매주 평균 120여명이 목욕탕을 찾고 있다"며 "점차 운영횟수와 이용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 비장애인 하나 되는 축제의 장”

‘제9회 북부어울림 체육대회’ 개최



5월 15일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에서 열린 ‘제9회 북부어울림 체육대회’ 모습.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성, 이하 북부장복)

이 5월 15일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제9회 북부어울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40여명이 참가한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큰 공굴리기, 노끈 이 어붙이기, 휠체어 릴레이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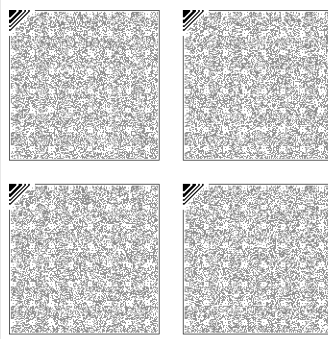
또한 대회장 한편에는 후크볼, 볼로볼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북부장복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장애인에게는 삶의 활력을, 자원봉사자에게는 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됐다”며 “앞으로도 ‘북부어울림 체육대회’가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는 삼성 SDS와 마들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여가문화활동 기회 마련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에 나선 장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복)이 장애인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장복은 5월 21일 평소 나들이 기회가 적은 장애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 기회를 마

련했다.

이번 나들이에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정읍장복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정읍장복 박종형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여가문화활동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 스케이트교실 운영

6월부터 접수...총 16회 수업 진행



아산장복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적장애인 스케이트교실’을 운영한다.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이 12월까지 ‘지적장애인 스케이트교실’을 운영한다.

수강생 모집은 6월부터

며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

산장복 생활체육팀(☎041-5450-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체육활동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케이트교실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해 우수 선수 발굴까지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장복은 스케이트 외에도 당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경장복 · 사회복지시설

효과적 사례관리 위한 MOU 체결



문경장복은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5개 사회복지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은 5월 29일 문경시사회복지관에서 5개 사회복지시설과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례관리 사업이 개

별 시설이 아닌 복지시설협의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돼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중 및 중복지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경장복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문경지역자활센터, 신망애육원, 아리솔지역아동센터, 강원랜드복지재단문경복지센터 등이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46호 2013년 6월 12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경선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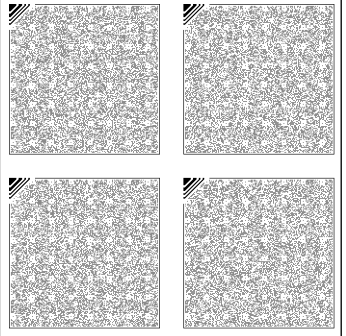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pd.or.kr E-mail : kapppd@kap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선거 후보’



기호 1번 채종걸

프 로 필

- 1986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학사
- 2002 대전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
- 2001~201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 2001~현 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사
- 2009~20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 2010~현 재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새문안로타리 봉사위원장
- 2010~현 재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2002~현 재 대전대학교 한의학대학 겸임교수

공 약

□ 채종걸의 약속

- ▶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 ▶ 자랑스런 지장협을 만들겠습니다.
- ▶ 신명나는 장애운동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 ▶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로 요구하겠습니다.
- ▶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만이 아닌 발로 뛰겠습니다.

□ 실천과제

- ▶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대의를 실천하겠습니다.
- ▶ 장애운동의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 ▶ 지역의 재정자립을 위한 합법적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 ▶ 정책역량 강화, 정치역량 강화로 지장협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1. 자랑스런 지장협!

- 장애인당사자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 장애인정책 대안제시를 위한 정책역량 강화
 - 장애인당사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치세력화
 - 법개정을 통한 장애인당사자단체와 지원단체의 차별화 확립
 - 상곡 장기철 회장님 추모사업회 설립
- 협회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 장애계 현안 이슈화를 위한 연대·교류 확대
 -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의 대응력 강화

- 현장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 해외복지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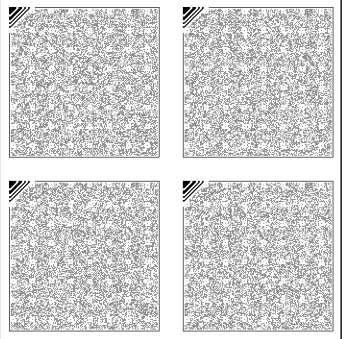
2. 신명나는 지장협!

-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시도협회장의 이사회 과반수 참여보장
 - 객관적 평가에 의한 포상체계 수립
- 권위보다는 상호소통과 대화로 협회의 화합을 이끌겠습니다.
 - 상호존중하는 회장단회의 정례화
 - 지역순회방문 부활을 통한 산하조직의 의견수렴
-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 포상제 도입
 - 모범 및 우수직원 해외연수 실시

3. 전진하는 지장협!

- 재정자립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센터장의 유급제 추진
 - 고유사업 및 특화사업 개발·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 장애인단체 수익계약제 부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재개정 추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직무교육 정례화를 통한 행정 전문성 제고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체계 구축
 - 협회 사회복지사 근무경력 100%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선거 후보’

기호 2번 이규달



프로필

- 2005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장애인복지학과 수료
- 2013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체육과 재학 중
- 1985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회장
- 1988 곰두리차량봉사대 중앙회 조직국장
- 1992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 지회장
- 2001~2004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장
- 2008~2009 한국성인장애인복지협회장
- 2009~2013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장
- 2010~2012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 2010~현 재 서울특별시 복지위원회 위원
- 2010~현 재 서울특별시 편의시설설치시민추진단장
- 2012~현 재 새누리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201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공약

실천하는 약속 I - 지회와 함께 발전하는 중앙회

1. 협회장 직선제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 능력보다는 중앙회장과의 관계성에 의해 좌우되는 비민주적 선출제도 개혁
2. 지회 법인화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 협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사업수행을 추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3. 지회에 활동비를 반드시 지원하겠습니다.
- 복지사업국을 확대 개편하고 수익사업 업종을 다변화하여 재원조달
4. 협회장, 지회장 임기를 연장 하겠습니다.
- 지회 운영의 연속성과 성공을 위해 협회장 지회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
5. 지회를 위한 고충처리 전담팀을 신설하겠습니다.
- 법무·행정, 세무 재정 지원팀의 역할 강화

실천하는 약속 II - 봉사과 희생의 능력 있는 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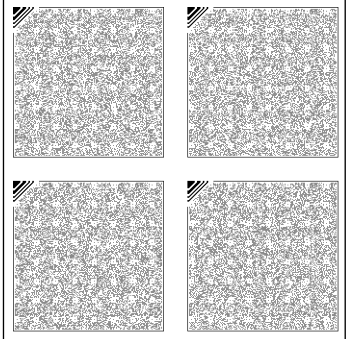
1. 시·도 협회장 전원을 이사로 등재하여 중앙회를 투명하게 운영
2. 정책 생산 기구 강화를 통해 협회 발전
3. 회원 전용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 격차 해소
4. 회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 확대
- 정부 정책에 맞춰 회원들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 지장협 회원 우선 채용

5. 회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 시켜 사회 진출의 진입 장벽 철폐
- 고등교육기관,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직업교육 시스템 개발 운영

실천하는 약속 III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는 중앙회

1.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 장애인 연금 현실화(연금의 인상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장애인 단체의 수의 계약권이 부활 되도록 하겠습니다.
5. 장애인 아파트와 공공 임대 비율을 높이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선거 후보’



기호 3번 김상환

프로필

- 1970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2001 대구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CEO 과정 수료
- 2002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10 경북외국어대학교 헬스케어복지학부 졸업(사회복지사)
- 1976 (주)창진물류, (주)창진, (주)광촉매환경, (주)우정테크 대표이사, 회장
- 2000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중앙회장 (전)
- 2004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전)
- 2005 대구광역시파크골프협회 회장 (전)
- 2005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 2006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 2006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부회장

공 약

1. 협회 정체성 확립

- 국내 최대의 장애인 당사자단체로서 장애인복지의 당사자주의 실현
- 장애인회원을 기반으로 한 조직운영으로 회원 및 장애대중의 권익 강화에 중점

2. 협회운영의 전문성확보

- 사무처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정책개발기능 강화
- 사무처 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젊은 층의 회원 확보 주력
- 정치 세력화를 위해 능력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 발굴 및 전략적 육성
-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복지관련 전문가 발굴
- 명예회원(사회저명인사) 및 전문가집단의 참여 유도
- 시도협회 및 지회 역량강화 지원 및 연대사업 강화
- 직원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직원의 해외연수기회 지원)
- 중앙회·시도협회 및 지회·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의 노동권 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
- 직원의 자세와 능력개발을 위한 관 내·외 교육 강화

3. 협회운영 투명성 제고

- 수익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부정개입여지 발본
- 모든 회의록, 예산, 사업 공개로 협회의 투명한 운영
-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 법률에 준한 원칙 있는 운영
- 협회 조직진단 및 경영컨설팅 시행
- 조직의 내실화 및 통합행정시스템 구축
- BSC(성과관리) :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설정, 부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 관리하는 시스템
- CRM(회원관리) : 회원통합관리, 만족도 조사, 회원 서비스에 대한 성과 관리 시스템

- BMS(업무관리) : 업무의 의사결정과정, 문서 등의 전산 관리 시스템
- KMS(지식관리) : 장애인복지 업무 노하우 등 실천 지식을 공유하는 관리 시스템

4.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

- 지장협 산하 전체 조직원의 임기를 완전하게 보장
- 협회장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여건 마련
-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조직의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회 차원의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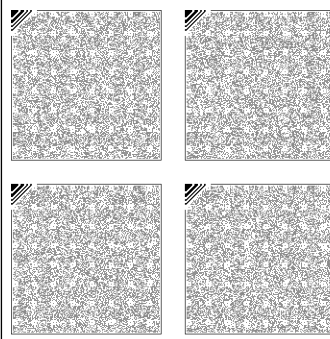
5. 대외적 위상 제고

- 국내 최대의 장애인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
- 각종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단체의 협조체계구축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자로서의 역할
- 여성, 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의 욕구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6. 기타 공약사항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책임이행부담금 1%로 경감
- 시·도 협회장 및 시·군·구 지회장의 상근 직원화(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센터장의 유급화)
- 부정·비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시·군·구 지회장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사업실시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선거 후보’

기호 4번 류종준

프로필

- 1975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7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1998 한국장애인의회정치대학 수료
- 2001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석사학위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 1979 사회복지법인 안동재활원 발기인(총무) 부원장 역임
- 1997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이사 취임 (현)
- 1999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사 취임 (현)
- 1999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부회장 취임
- 2000 정기간행물 ‘새보람’ 발행인 취임
- 2000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제2대 관장 취임
- 2000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이사 취임
- 2003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 취임
- 2010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부회장 취임 (현)
- 2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류종준 장애인나눔고리설립자 (현)
- 20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현)
- 2011 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앙회 부회장 취임 (현)
- 2012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취임 (현)
- 20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임 이사 취임 (현)
- 2012 제18대 대통령선거 지체장애인 대책위원장 취임 (현)
- 2012 국무총리위원장 장애인위원 취임(15부처 장관위원) (현)

공약

1. 고유 기능에 충실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무총장 이하 임직원의 투명성을 강조하겠습니다.
- 시·도협회 및 지회에 4년 임기내 정부예산과 후원금 등 모든 수입을 10배 인상시켜 폭넓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일수록 생활이 힘든 장애인이 협회에 근무한다면 소득 인상을 하겠습니다.
- 지회장 임기를 4년으로

2. 주체적인 장애인 상을 확립하겠습니다!

- 장애인 기초 복지 수당의 확대에 노력하여 인간적인 삶에 주력하겠습니다.
- 복지관 등 가능한 모든 시설을 활용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사회가 강제적으로 채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경제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애인 거대그룹을 창립, 이를 확산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장애인 주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은행, 장애인보험회사, 장애인택시회사 등)
- 이런 회사를 확산하여 장애인 전경련 등을 창립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조직에 요청하여 ‘사회복지 부총리’를 신설하고 모든 사회복지를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애인 복지의 이상향을 건설하겠습니다!

- 현재 국내의 장애인 복지 수혜를 철저히 분석하고 단순화, 일원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를 공부하는 연구소를 출범시키고 이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은 적용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복지 확충에 따른 추세에 따라 장애인 복지 부문도 그 이상의 비중을 실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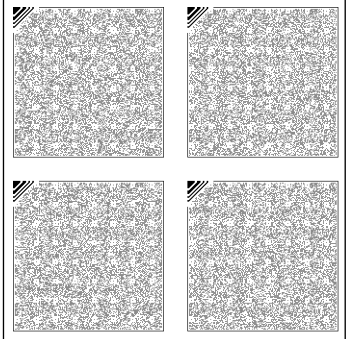
5. 성실한 장애인을 위한 메리트를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의 일선에서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 포상하고 그 노하우(Know-How)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 교양적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춰 지구촌의 모든 모범사례 등을 발굴, 수집하여 장애인 복지 세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 젊은 장애인들이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 약관 20세에 장애인 업계에 투신,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 안동재활원의 전신인 ‘협동회’에 20세의 나이로 원장과 같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실무교육과 재활을 담당하였습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제7대 중앙회장선거 후보’



기호 5번 김광환

프로필

- 1984 (국립)강릉대학교 상경대 무역학과 졸업
- 2004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199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부장
- 200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2001 보건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 심의위원
- 2001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 200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사
- 20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사
- 2001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이사
- 2003 보건복지부 옴부즈맨 의원
- 200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문위원
-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고용대책위원
- 2004 한국장애인재단 운영위원
- 200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
- 2005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앙회장 취임
- 2013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중앙회장 사임

공약

1. 안정적 조직, 민주적 운영

- 협회장 및 지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
- 중앙회장, 협회장 및 지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통일
- 인사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 시·도 협회장 및 지회장, 시설장의 확실한 임기 보장
-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통한 지역 불만 해소
- 합리적인 상향식 인사추천으로 중앙 하향식 임명제도 타파
- 선거제도 개선
- 시·군·구 지회장 임명제 개선
- 선거개혁심의회위원회 구성

2.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단체의 위상복원

- 중앙회 사무처의 정책기능강화
- 사무총장 임기제 실시 (정책역량을 갖춘 인사공모)
- 사무처 및 지방조직 사무요원 정책 연구기능 강화
- 완전한 당사자주의의 실현
- 장애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역량 개발
-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부당대우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장애인 정치세력화
-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활성화 및 지원
- 전문포럼 및 세미나 활성화
- 연구사업 및 발간사업 확대
- 중앙회장의 정당가입 배제
- 시·도 협회장 및 시·군·구 지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3. 지방조직의 체계적지원과 활성화

- 지역지회장의 권한 보장 및 처우개선
- 협회 특화사업으로서의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전국 지역 확대

-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시·군·구) 기술요원 채용권한의 지회 이행
-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장 활동비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와 동일) 신설 추진
- 지방조직까지 연결된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 회계 및 실무인력간 유기적 관계형성으로 지원체계 마련
- 지방조직 실무인력의 역량개발 및 자료공유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특화사업 발굴로 지회운영의 안정화

4. 미래지향적 사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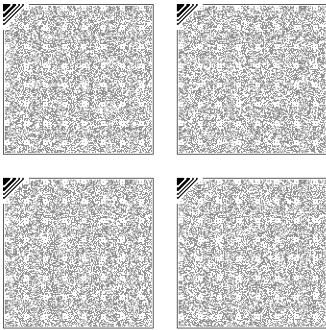
-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 지체장애인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생활체육 보급 및 지체장애유형별 세부 종목 지원 방안 마련
- 전국 지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와의 연대강화
- 문화예술레저 보급 및 활성화 유도
- 지역별 1개 이상의 문화예술사업 개발 및 보급
- 관광레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 고용확대사업의 활성화
- 시·도협회별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지역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립·지원
- 국제교류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선도적 위치 확보
- 동남아 각국 장애인단체와 국가간 복지발전 사업 추진

5. 희망의 동반자가 되는 지장협

- 지장협 30년사, 기념사업 추진
- 지장협 30년을 기념하여 협회가 장애인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발간
- 협회 설립자인 상곡(故 장기철회장) 기념사업회 설립
-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인물사 발간
- 지장협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사 발간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지하철 장애인 추락사고 방지 위한 설비 필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종류에 ‘도시철도 승강장에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기, 엘리베이터, 음성신호기, 점자블록 보도 등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승강장에서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승강장 선단 간의 좁은 간격, 지체장애인 전동스쿠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장애인 추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지하철 장애인사고에 뿔난 장애인들

대방역 · 성신여대입구역 등 사고지점에서 기자회견 편의시설 설치 및 서울메트로 사장과의 면담 요청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장애인 사고와 관련해 장애인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일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이 열차 탑승 도중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넓은 간격으로 인해 허벅지까지 빠지는 사고를 당

했다.

사고지점의 열차와 승강장 간격은 무려 17cm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시각장애인은 찰과상을 입었다.

또한 5월 18일에는 휠체어를 탄 한 중증장애인이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서 하차하려다 승강장과 열차의 높은 단차로 인해 뒤로 넘

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들은 이러한 사고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5월 28일과 6월 5일 사고가 일어난 대방역과 성신여대입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메트로 사장과의 면담, 사고에 대한 공식적 사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방역, 성신여대입구역 외에도 철도공사 구간의 많은 역사에 엘리베이터, 스

크린도어, 안전발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역사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회견과 함께 장애인들은 직접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지하철 승하차시 장애인들이 겪는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서울 지하철 장애인 사고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 고령자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확대

법제처, 2013 하위법령 특별정비 결과 보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3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있다.

법제처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정비하기로 한 하위법령 66건 중 53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 13건은 6월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라

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올해 개정해야 하는 하위법령은 총 119건으로 이 가운데 66건은 상반기에, 53건은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공표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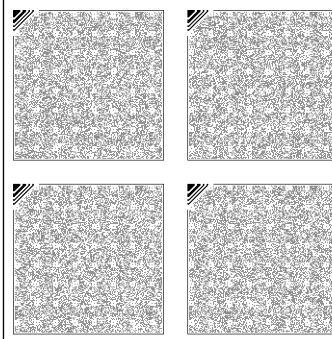
이번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내용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비율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수도권은 현행 5%에서 8%로, 그 밖의 지역은 3%에서 5%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밖에도 이번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통해 개선된 내용을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 다자녀가구에 대한 민영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새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정홍원 국무총리가 5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감코리아

정부는 5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2014년까지 장애 등급을 2~3개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등급제를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등급제 2017년 완전 폐지 올해 안에 발달장애인법도 제정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 대신 개인의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 유형 중에

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안전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현재 법정기준 보급대수 대비 57%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을 2017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공공부문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수화기본법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관련 제도를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미래전략 논의의 장 마련

‘2013 사회서비스 발전 포럼’ 발족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사회서비스 발전 포럼’을 구성, 5월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사회서비스 발전 포럼’은 정부부처,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의 보건, 사회복지, 경제, 행정 전문가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맡았다.

안상훈 교수는 첫 포럼에서 사회서비스 강화전략으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여성친화적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창조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방향 및 국정과제’를 주제로 그동안의 사회서비스 발전과정과 신정부의 국정과제 중 사회서비스 관련 과제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사회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발전 과제로 예방중심·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

비스 수요 확충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검토해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포럼은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사회서비스정책 비전과 과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매년 장애인고용 정책대상 실태파악 가능해져

1년 주기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이 올해부터 매년 조사되어 발표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월 7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조사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장애인의 통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조사주기도 3년으로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매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

활동 관련 주요통계를 1년 주기로 생산하고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장애인의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 방안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올해부터 1년 주기로 실시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장애인시설비 횡령한 시설장 고발

장애인 간 폭행 묵인하고 방치하기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시설운영비를 횡령한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검찰에 고발된 시설장 A씨는 1998년 서울시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시에 B시설을 개설했으며 이곳에는 지적장애 여성 27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시설장의 회계 운

용상 문제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장 A씨는 거주인들로부터 받은 시설이 용료 3천200여만원을 개인 명의의 보험료 납부와 자녀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거주인 11명으로부터 매달 13만원에서 19만원 정도를 프로그램비와 사회 적응활동비로 받아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45만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 또는 사회 적응활동에 지출된 내역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주택준비금 명목으로 거주인 보호자 12명으로부터 4억1천500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이 돈을 보호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B시설은 일부 장애인이 속옷에 물건을 숨긴다는 이유로 속옷을 입지 못하게 했으며 물을 끼얹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이밖에 거주인에게 한 끼당 1천원 미만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 하는가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 재료를 사용하고 2006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거주인 중 일부를 방장으로 지정해 위계구조를 만들어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A씨는 방장이 다른 장애인을 파리채로 때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보조금 지원이 없거나 적은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는 B시설 장애인들이 적절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청했으며 마포구청장과 안성시장에게는 관내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대책 마련 필요”

정책솔루션위원회,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

정책솔루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진행된 정책솔루션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불법주차 신고가 접수되어도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스마트 앱을 통해 ‘생활불편 신고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솔루션위원회는 또한 주차가능, 주차불가로 이원화되어 발급되고 있는 장애인자동

차표지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것을 근거로 불법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면 모두 주차가 가능한 줄 알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솔루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주차표지발급을 주차가능 차량에만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량임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작은 표지를 발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인주차구역안내표지에 ‘주차가능 표지 차량 전용’ 및 안전행정부의 위반차량 신고 안내 ‘생활불편신고 앱’ 문구 추가를 건의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생활불편 신고 서비스’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장애인단체와 유관기관, 주민자치회 등에 배포, 홍보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경찰청,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 특별 단속

경찰청이 6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급식 비리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

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문

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해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KT, 시각장애인 음성콘텐츠서비스 확대

통신사 관계없이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이용



SKT가 시각장애인 음성콘텐츠서비스인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개방했다.

SK텔레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콘텐츠서비스인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5월 23일부

터 통신사와 관계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든 시각장애인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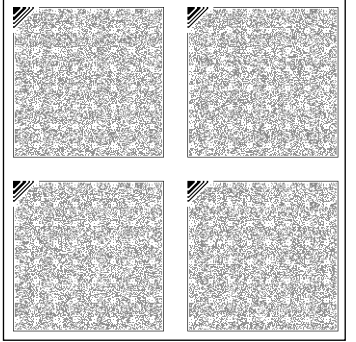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SK텔레콤이 지난 2011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도서·뉴스·잡지·생활정보·재활 정보 등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서비스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지금까지 SK텔레콤에 가입된 시각장애인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고객이면 누구나 T스토어·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지난 1년 동안 총 53,276건의 콘텐츠가 업로드 될 정도로 풍성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도서 2,785건, 기타 50,491건) 이용 규모가 연 44만 건에 이를 정도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높은 호응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을 얻고 있다.

또한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은 시각장애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직접 참여해 UI(User Interface) 터치 방식 등을 설계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음성 도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자회사 포함 450여 명의 구성원들이 음성 도서를 녹음하는 재능나눔 활동을 통해 '행복동행'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확대 조성

덕유산·주왕산·치악산·가야산 등 4곳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국립공원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무장애 탐방로를 확대 조성한다고 5월 22

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무장애 탐방로는 덕유산 구천동계곡 1.5km, 주왕산 주방계곡 2.0km, 치악산 금강소나무숲길 1.1km, 가야산 홍류동 계곡 0.8km 등 총 4곳

5.4km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해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계단과 보행턱을 제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7년

까지 20개 국립공원에 무장애 탐방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진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디자인부장은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조성으로 산악지형 때문에 국립공원 방문을 망설이던 보

행 약자도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국립공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미국, 일본 등 국내외 공원 시설에 대한 설계자료를 수집해 탐방로, 야영장, 주차장 등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룡산 수통골에 무장애 탐방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공개오디션 실시

7월 2일까지 접수...누구나 지원 가능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제5회 공개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보컬, 수화무용, 연주·성악, 뮤지컬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홈페이지(<http://www.idok.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bitsori@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오디션 참가 대상자가 가려지며 오디션은 7월 6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예술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연과 뮤지컬에 합류해 활동하게 된다.

한편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2008년 창단되어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과 장애인 예술가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 초청 공연, 미국 초청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7월 2일까지 공개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할머니 될 때까지 장애인 옷 만들거예요”

장애인 의류업체 ‘마이리오’의 안선영 대표

마음에 드는 옷은 둘째 치고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조차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

이들을 위해 옷의 디자인부터 제작과 홍보, 회사 경영까지 혼자 도맡아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이가 있다. 바로 장애인 의류업체 ‘마이리오’의 대표이자 디자이너인 안선영(44세) 씨다. 편안함은 물론 멋스러움까지 모두 갖춘 장애인을 위한 옷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항상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그녀를 만나봤다.

■ 내겐 천직인 장애인 옷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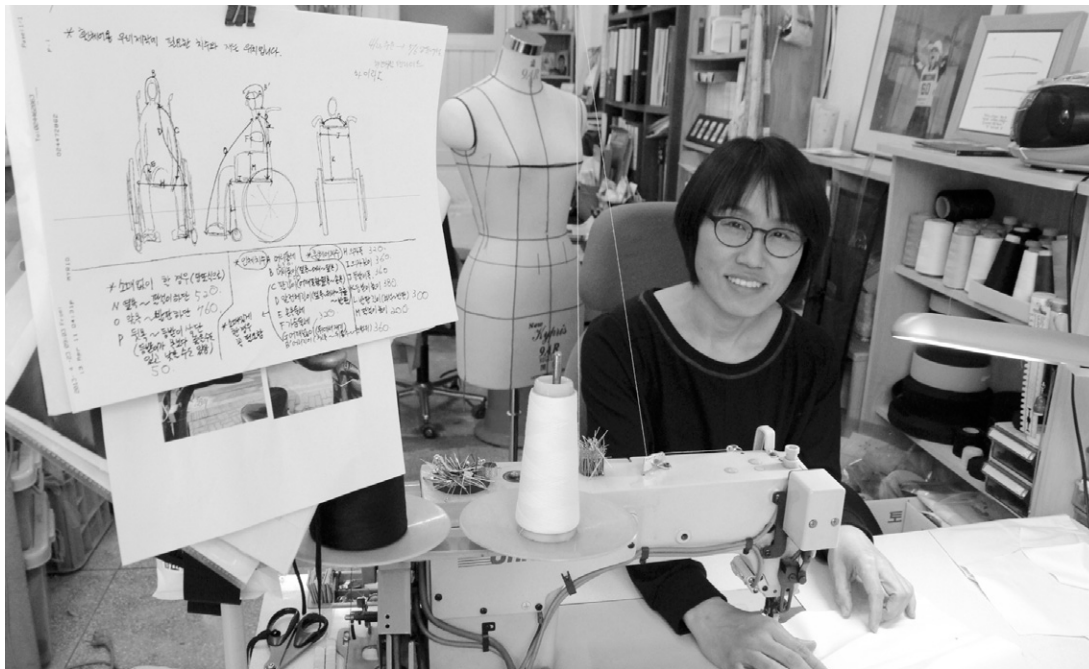
장애인 옷 디자이너가 본인에게는 천직이라는 안선영 씨. 그러나 패션 관련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장애인 옷 디자이너를 꿈꿨던 것은 아니다.

“장애인 옷을 만들게 되기까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연히 얻게 된 기회의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죠”

대학 졸업 후 일반 의류회사에 입사해 8년 동안 디자이너와 패턴사로서의 경력을 쌓던 그녀는 IMF 경제위기 때 정리해고의 여파로 회사를 떠나야 했다. 대학 때부터 보고 배운 거라고는 오직 디자인뿐이었던 그녀에게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순간이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신문 구인광고를 뒤지다 우연히 해외봉사단 모집광고를 보게 됐고 좋은 경험이 될 거란 생각에 지원서를 냈다. 그렇게 그녀 인생의 2막이 시작됐다.

“방글라데시로 봉사를 떠났어요.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남는



장애인 의류업체 ‘마이리오’의 대표이자 디자이너인 안선영 씨.

시간에는 장애인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장애인 옷 디자이너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장애인들과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봉사를 마치고 2년 후 귀국한 그녀는 지인의 권유로 한국장애인인양연구소 일을 돕게 됐고 그곳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다. 바로 장애인 옷을 만드는 일이다.

“일을 도와주다가 장애인 옷을 만드는 일에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 장애인 옷을 향한 뜨거운 열정

본격적으로 장애인 옷을 만들기 시작한 안선영 씨. 그러나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장애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 많았다.

장애인을 위한 옷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그녀는 33살,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학교에 편입해 재활학 공부를 시작했다.

실제 그녀의 작업실 책장에는 디자인 관련 서적 외에 인체해부학, 재활공학원론, 기능해부학 등 다양한 전공 서적이 꽂혀있었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열정이 느껴졌다.

그녀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모델리스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해 주어진 6개월의 해외연수 기회도 그녀는 주저 없이 장애인 옷을 배우는데 투자했다.

“장애인 옷을 만드는 유명한 독일회사 ‘롤리모덴’에서 일을 배웠어요. 무작정 연락해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동양인이 전화해 다짜고짜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 그곳에서도 처음엔 기해했어요. 사실 될 거라는 기대가 크지 않았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연수 허락이 떨어져 곧바로 독일로 날아갔죠”

쉽지 않은 기회를 거머쥔 만큼 독일에서의 6개월은 말 그대로 앞만 보고 달렸다. 장애인 의류 제작에 있어 보다 앞선 독일의 선진기술을 익히기 위해 눈과 귀를 열고 발로 뛰며 부지런히 배웠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장애인 의류회사 ‘마이리오’를 설

립했다.

열정과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무모하리만치 빠르게 진행됐다.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녀였기에 장애인 의류에 대한 자신감 하나만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기에겐 넘어야 할 산이 많았던 것이다.

“회사 설립 후 처음 2~3년은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좋아하는 장애인 고객들을 생각하면 쉽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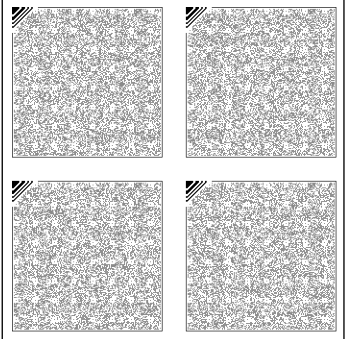
■ 작은 변화에 큰 자유 얻는 장애인들

‘작은 변화, 큰 자유’. 그녀의 작업실 앞에 크게 쓰여 있는 문구다. 옷을 만들 때 작은 변화만 줘도 장애인들은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절단장애인의 경우 절단 부위를 고려해 바지 지퍼의 여밈 방향을 바꿔주고 손 기능에 제한이 있는 척수장애인은 단추나 지퍼 대신 고무줄 처리만 해줘도 혼자 옷을 입고 벗기 수월해요”

그녀는 ‘장애인 옷은 단지 패션상품이 아니라 장애인을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보조공학의 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 옷은 비장애인 옷과는 다르게, 그렇지만 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르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던 찰나, 그녀가 직접 만든 옷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내보인 옷들은 외관상 비장애인 옷과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칫 주위로부터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그렇지만 다르지 않게’ 옷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금물

“‘장애인 옷’ 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신체적 특징이 다르니까 옷 만드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장애인 옷에 대한 특별한 시선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나가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때면 음악이 흘러나와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 쳐다보곤 하죠.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을 위한 옷을 만드는 좋은 일을 한다는 주변의 칭찬에도 그녀는 고개를 내젓는다.

“장애인 옷을 만드는 일이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장애인 옷을 만드는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장애인 옷을 디자인하며 사는게 꿈이라는 그녀. 대화를 나누는 내내 장애인에 대한 그녀의 무한한 애정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단추를 혼자 채우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보이지 않는 안쪽에 스냅단추를 단 셔츠.

이웃사랑 실천하는 새보람 요양병원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보람 요양병원은 도심속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병실환경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재활요양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내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가 운영하고 있는 새보람 요양병원은 장애인 행사 의무대 활동지원, 장애인 방문의료서비스, 복지관과 협력한 지역연계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작년 5월부터는 지체장애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형외과

이 외에도 병원생활에 무료해지기 쉬운 환지들에게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웃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새보람 요양병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방과



장애인 행사 의무대.



맞춤식 재활치료 프로그램.



웃음치료.



어버이날 행사.

대표전화 02.3492.7888



서울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 나서

신한카드 · 신한은행과 우대용교통카드 사업 MOU 체결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신한카드, 신한은행 컨소시엄과 ‘서울시 우대용교통카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23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기관은 2018년까

지 우대용교통카드 발급 및 관리 업무, 카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만 6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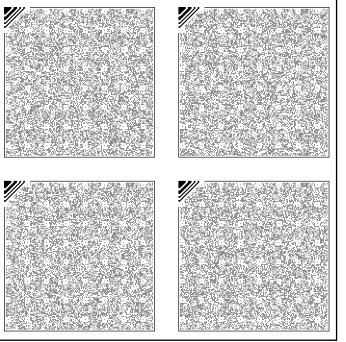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세 종류의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 카드로 지하철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장애인과 노인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보

훈지청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우대용교통카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

소리로 읽는 새보람



로 신한카드, 신한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계족산 장동산림욕장에 데크숲길 조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동편의 제공

장애인과 노약자도 대전시 계족산 장동산림욕장을 불편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계족산 장동산림욕장에 사업비 5억7천

여만원을 들여 사방댐~숲속음악회장 472m 구간에 폭 2m의 데크숲길을 조성한다.

이 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노면이 불규칙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이 어려웠고 동절기 때는 일반 등산객들조차 산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스템을 도입, 오는 10월

까지 데크숲길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백종하 대전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데크숲길 조성을 시작으로 관내 공원녹지 내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사기간 동안 차량통행 불편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수원시는 시청 본관 1층에 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청 본관 1층에 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이용자의 키를 인식하는 자동센서와 시각장애인용 모니터 점자키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

관계등록부, 토지대장, 교과부 증명서류 등 59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365일 24시간 운영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영통1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했다.

양주시, “수도요금 감면받으세요”

1~3급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양주시(시장 현삼식)가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5월 29

일 밝혔다.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

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10톤 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을 감면해 준다.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덕정동에 소재한 양주수도관리단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다음 고

지분 부터 최고 월 5천원(물이용부담금 감면 별도) 이내로 감면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 장애인 사회안전망 구축

희망나눔 결연사업 발대식 가져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5월 2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희망나눔 결연사업 발대식을 갖고 장애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보호자가 없는 재가 장애인 400여명을 관계공무원, 사회복지

지사, 사회단체, 인권지킴이단과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성폭력 등에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과 결연한 관련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은 앞으로 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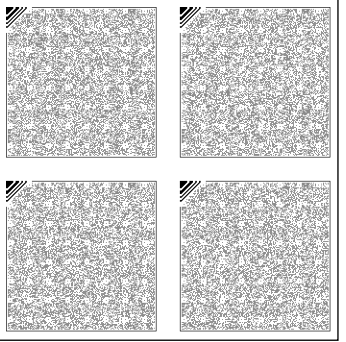
회씩 정기적으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피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인권보호 활동을 펼치게 된다.

충청남도는 이들을 통해 독거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통합서비스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자가 있어도 낮 시간 홀로 있는 장애인과 기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으로 보호대상자를

소리로 읽는 새보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결연사업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충남형 복지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희망복지우체통’ 운영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 발굴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6월부터 복지동인 광명2동에 ‘희망복지우체통’을 설치, 시범 운영한다.

희망복지우체통은 지난 3월부터 광명시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동의 전 가구 방문 조사 사업의 후속조치로 시범운영 후 18개 전

체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희망복지우체통’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제보받아 해결해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가 곤란하거나 사회의 보

살핌이 필요한 경우 생활 상황,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희망복지우체통’에 넣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실시한 후 긴급복지, 복지동 요일별 테마복지,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 광명희망나기, 생활민원처리,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광명시는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희망복지우체통’을 설치해 운영한다.

전주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기존 전 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되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예외지원 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한다.

확대되는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아, 장애인 산모,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

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등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교육을 이수한 도우미가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산모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2-230-5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중증장애인 교통수당 지원대상 확대

1~2급 장애인에서 3급 뇌병변 장애인까지

제주시(시장 김상오)가 중증장애인 교통수당 지원대상을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3급 뇌병

변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제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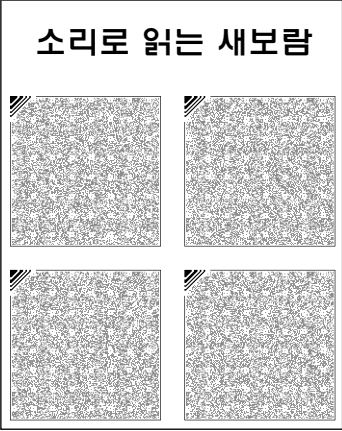
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

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3월, 6월, 9월, 12월에 월 2만5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차량소유자 및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무료 이동차량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V

지난호까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반적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편의증진법 및 주차장법령상 대상시설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 편의증진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대상시설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별표2]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과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증강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홍 현 근**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제4조관련)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령에서는 공원 자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공원 내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주차구역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가.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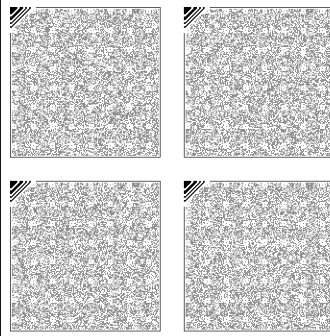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나. 대상시설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여부(주차장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매개시설	면적	1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1종린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권장	300㎡이상~1,000㎡미만	200㎡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1,000㎡미만	300㎡
	대피소			300㎡
	공중화장실			300㎡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500㎡이상	300㎡
	지역아동센터	의무	300㎡이상	300㎡
	일반음식점	의무	300㎡이상	300㎡
제2종린생활 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제곱미터 이상)	의무	300㎡이상	300㎡
	안마시술소	의무	500㎡이상	300㎡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의무	300㎡이상	150㎡
	관람장	의무		150㎡
	집회장	의무	500㎡이상	150㎡
	동·식물원	의무	300㎡이상	150㎡
	전시장	의무	500㎡이상	150㎡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500㎡이상	150㎡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의무	1,000㎡이상	150㎡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	150㎡
	장례식장	의무	500㎡이상	150㎡
교육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의무		300㎡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500㎡이상	300㎡
	도서관	의무	1,000㎡이상	300㎡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의무	－	300㎡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	300㎡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	300㎡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	350㎡
운동시설		의무	500㎡이상	150㎡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	150㎡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500㎡이상	150㎡(오피스텔제외)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권장	객실수30이상	200㎡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업)	의무	－	200㎡
공장		의무	장애인고용의무	350㎡
자동차관련 시설	주차장	의무		300㎡
	운전학원	의무		300㎡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1,000㎡이상	150㎡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1,000㎡이상	300㎡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300㎡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300㎡
관광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1,000㎡이상	300㎡
	휴게소	의무	300㎡이상	
아파트		의무	별도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참조
연립주택		의무	별도규정	
다세대주택		의무	별도규정	
기숙사		의무	별도규정	

소리로 읽는 새보람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 여름철 다양한 불면증 유형

여름이면 늘 잠 못 드는 사람이 늘어난다. 더운 날씨 때문에 잠들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모기소리에 예민해져 뒤척거리기도 하며 체력이 저하돼 불면증이 나타나거나 악화되기도 한다. 무더운 여름 밤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면증 양상을 알아보자.

■ 더워서 잠 못 드는 한 여름 밤의 불면

사람은 잠들기 시작할 때 체온이 1도 정도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몸 안의 열을 발산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어있는 것이다. 하지만 온도가 높은 여름에는 몸 안의 열을 발산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쉽지 않아져서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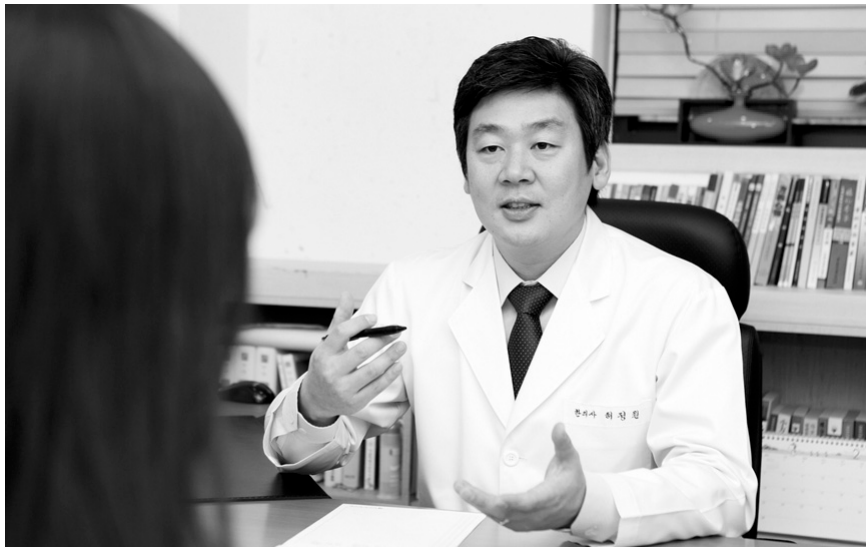
이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것을 마시는 것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온수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것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약간씩 올라가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를 낮추려 하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게 되어서 잠이 들기가 수월해지게 된다.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이용해 쾌적한 수면환경을 만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 다만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추워서 중간에 잠이 깰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엔 체온을 살짝 떨어뜨리더라도 수면 중에는 일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얇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좋다.

■ 모기 소리에 잠을 설치는 예민한 불면증

모기 소리에 잠 못 들고 모기와 신경전을 펼치느라 잠을 설치다는 사람이 많다.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많이 예민해져 있는 불면증 환자라면 모기는 커다란 수면의 방해물이다. 우선 모기를 잡거나 모기향을 피우거나 해서 모기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 잠 못 자는 상황에 대해 무더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잠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잠 못 들게 하므로 ‘자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낮잠 자면 돼지 뭐’하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 체력 저하로 인한 불면증

불면증 환자의 유형 중 스트레스성 불면증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체력 저하로 인한 불면증이다. 천하장사도 더위는 못 이긴다고, 한 여름 무더위에 몸은 축 늘어지고 땀 새 없이 흐르는 땀에 몸 안의 진액이 모두 빠져 나간 듯 맥을 못 춘다. 체력이 지나치게 소모되어 잠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마저 고갈되면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면 체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체력을 증진시키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름 보양식은 기력이 저하되어 잠 못 드는 사람에게



자미원한의원 허정원 원장

도움이 될 수 있다.

■ 덥다고 마신 맥주로 불면증 심화

한 잔의 맥주는 이완 효과로 인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하고 혈액순환을 가속시키면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일에 매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진다. 또한 체온을 상승시켜 수면 중 갑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 깨게 되므로 숙면이 어려워지게 된다. 간혹 술 마시고 깨지 않고 잘 잤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얇은 수면만으로 길게 잔 것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낮아 아침 기상 시 피곤함을 느낀다. 만약 만성적인 불면증이 있다면 되도록 술을 멀리해야 한다. 술을 마셔야 한다면 가급적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로 적은 양을 마시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알코올 배설을 돕고 잠자기 2~3시간 전까지만 마시는 것이 좋다.

여름엔 불면증, 과다수면 등 수면장애 환자들이 증가한다. 더위와 기력저하로 나타나는 불면증이 많은데 이로 인해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두통, 무기력, 피부 트러블,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수면의 질이 낮았던 사람들이 낮에 졸리고 잠이 쏟아지는 과다수면의 경우에도 야간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무더워지는 여름인 만큼 수면환경을 되도록 쾌적하게 갖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정보

황윤상 (변호사)



Q) A, B, C는 동네 시장 한구석에서 열리는 도박판에서 만난 사이인데 B와 C는 그만 A에게 각 100만원 씩 도박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년 ○○월 ○○일 도박으로 인해 A에게 지게 된 도박빚을 △△년 △△월 △△일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주었고, C는 도박빚을 지고 일주일 후에 A에게 100만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B는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위 도박빚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A는 위 차용증을 증거로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A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간에 약정을 한 사안이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도박채무가 발생한 경우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록 B가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더라도 법원은 위 채무가 도박 빚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승소할 수 없습니다.

Q) 그런데 C는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기한 도박빚을 모두 A에게 변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C는 A에게 이미 변제한 1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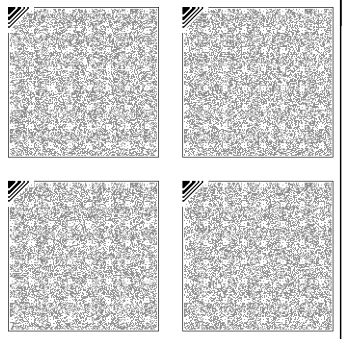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불법적 원인으로 인한 급여이더라도 이미 채권자에게 제공을 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C는 본인이 변제하지 않아도 될 도박 빚 100만원을 변제한 것이지만 이미 변제를 한 이상 A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B와 C의 두 경우 모두 스스로 돈을 주는 경우는 무방합니다. 즉 B의 경우 A가 재판을 통해서 B에게 승소할 수 없지만 만약 B가 임의로 100만원을 A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도 재판을 통해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A가 임의로 돌려준다면 아무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소리로 읽는 새보람



갑이 을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을과 친분이 있는 병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을은 뇌물로 전달해 주겠다고 돈을 받았지만 결국 이를 병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에 갑은 을에게 자신이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돈을 준 원인이 불법하기 때문에 (뇌물로 전달해 줄 것을 이유로 금전을 지급)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애초에 을이 뇌물로 전달할 생각 없이 갑을 속여서 받은 것이었다면 예외)

※ 변호사 황윤상 : 전화번호 (042) 488-4141 팩 스 (042) 488-4131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정책팀장)



Q)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신청해서 지원 받으려면 신청 및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후 해당 시·군·구에

서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후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각 지자체별 예산 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조건 등)에 의거하여 대여가 불가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

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 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자기개발 훈련비

6)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7)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2)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함.

구분	2013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이상
	1,430,420원 이하	2,435,577원 이하	3,150,787원 이하	3,865,997원 이하	4,581,205원 이하	5,296,415원 이하	6,011,625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715,210원씩 증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우대조치 확대

공공입찰 시 가점 ·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조치가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에서 마련한 혜택은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

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양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되면 선정 공고일 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우대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

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7월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추진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한다.

충청남도는 하반기에 당초보다 185명이 증원된 760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5월 27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복지일자리(452명), 장애인 행정도우미(275명), 시각장애인안마사(28명) 등으로 미

취업 재가 장애인의 근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위탁 수행기관인 대한

안마사협회 충남지부로 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특성에 따라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도서관, 병원, 경로당 등에

배정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의영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쟁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확대와 직

업재활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도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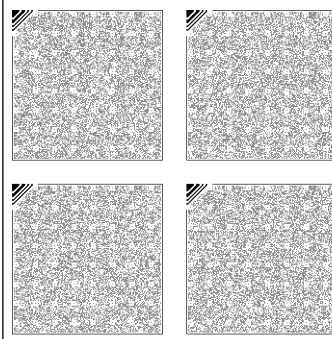
충남도,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행정도우미 등 760명 선발 예정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경비직	(주)한얼관리	서울 마포구	70세 이하	남	초등학교 야간당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2	서비스직	(주)선정인터내셔널	서울시 종로구	40세 이하	여	아웃바운드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5세 이하	남	소독원	월 9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4	사무보조직	금융감독원	서울시 영등포구	50세 이하	무관	사무보조 및 행사지원	107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미화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마포구	65세 이하	여	아파트 미화직	월 85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운전직	(주)지피솔루션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남	거래처납품 및 배송	월 1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검수직	현대엠앤소프트	서울시 동작구	20~30대	무관	네비게이션 검수	연봉24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경비직	동아씨에스	서울시 노원구	65세 이하	남	아파트 경비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9	상담직	케이디텍	서울시 은평구	45세 이하	무관	상담직	월 120만원이상	4대보험	02-2289-4322
10	경비직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시 강동구	55세 이하	남	빌딩경비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1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2	서비스직	맥스터디	-	50세 이하	무관	중고등학생 수학 영어 강사(재택근무)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3	상담직	메디원의료정보 컨설팅	서울시 동작구	연령무관	무관	상담직	면접 후 결정	4대보험	02-2289-4322
14	생산직	미주산업	서울시송파구	45세 이하	무관	엑세서리 조립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5	경비직	(주)티지엠	경기도 부천시	65세 미만	남	공사장 야간경비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6	생산직	O.HIVS컨설팅	경기도 파주	42세 이하	남	휴대폰 액정필름 검수	월 2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7	생산직	로얄 라이프	서울시 구로구	50세 이하	무관	생산직	월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8	단순직	샘물실업	경기도 남양주	40세 이하	남	단순직	월90만원	-	02-2289-4322
19	경비직	혜진종합관리	서울시 성북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신한은행, 따뜻한 마음나누기에 동참

굿월스토어 도봉점에 탐차 기증



신한은행은 서울 도봉구 소재 굿월스토어 도봉점에 매장 운영과 기부물품 수거에 필요한 탐차를 기증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굿월스토어는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상품을 장애인들이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곳으로 신한은행이 탐차를 기부함에 따라 앞으로 어디든 직접 찾아가 기부물품을 수거할 수 있게 됐다.

굿월스토어 박정열 대표는 “기

부를 통해 운영되는 굿월스토어는 개인 및 기업의 기부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신한은행의 기부물품 수거용 차량 기증을 통해 좀 더 많은 기부 물품을 기증 받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굿월스토어에 기부할 탐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매주 진행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스24, 중고도서 바자회 개최

판매 수익금 일부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쓰여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고양시장에 인종합복지관과 함께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일산 웨스턴 돔 광장에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중고도서 바자회를 실시했다.

2천 5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이번 바자회에서는 중고도서 2천여권이 권당 천원부터 최대 9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 장애

인 가정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예스24 강유진 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 공헌 활동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바자회에는 개그맨 김인석, 김지혜, 박희순, 박나래, 윤성호, 장도연 등이 도서 판매 자원봉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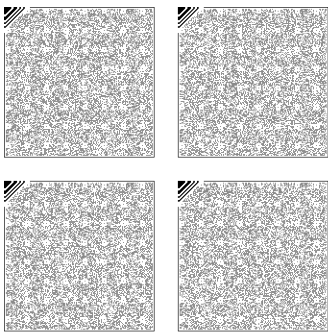
■ 2013년 5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상훈, 강병석, 김경희, 김구환, 김영진,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진호, 김천장애인복지관, 김환경, 남용원,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서동녀, 서석범, 선병욱, 송호율, 우병훈, 우지현, 원종빈, 유재복, 유지영, 육근록, 윤채환, 이은정, 이진행, 임채종, 이태훈, 장병철, 장추자, 정다운, 정선용,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하정미, (사)한백장학회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단
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난호 정답

1★민	2간	요	3법		4장	해
	행		무		마	
5해	물		6부	7★담		
★상				8석	굴	9암
10도	11로		12사			기
	미		13★원	자	14로	
	15오	이			16마	수

당첨자

5월호 정답

민원상담

이미정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김희성

서울 중구 예장동

김은정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
 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힌트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1★	2				3	
	4		5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가로열쇠

1. <식물>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채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3. 자기가 사랑하는 말.
4. 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따위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6. 좋은 곡식. ‘벼’를 달리 이르는 말.
8.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10. 흡수가 되는 열.
12. <법률>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4. <지명> 포르투갈에 있는 항구 도시로 포르투갈의 수도이다.
16. 건조기 따위로 머리를 말리거나 다듬는 일.

세로열쇠

2. 기쁨, 찬성, 환영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 치м.
3. 나라를 사랑하는 뜻으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5. 동력으로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연소 가스를 내뿜는 힘에 의하여 생기는 양력(揚力)을 이용하여 공중으로 떠서 날아다니는 항공기.
7. 줄타기, 곡마, 요술, 재주넘기, 공 타기 따위의 연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9. 착 달라붙는 상태가 매우 끈덕진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열렬하게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13. 고양이과의 포유류. 몹시 사납고 무서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나무, 가죽, 고무 따위의 물건을 붙이는 데에 쓰는 물질.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보령 비체
 팰리스에서 열린 ‘2013 장애인 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에서 지장협 정연숙 여성정
 책팀장이 ‘변경된 복지시책’에 대해 강
 의하고 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
 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물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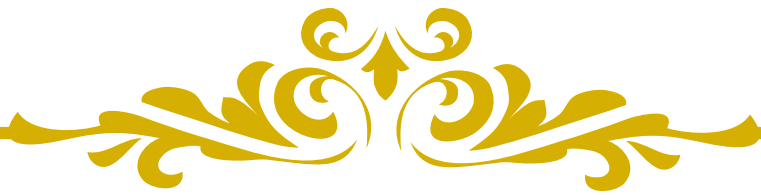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 7대 중앙회장 선거

투표 및 개표장소 공고

**2013년 6월 20일 실시하는 제7대 회장선거에 있어
투표 및 개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3년 6월 10일

제7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가. 투표시간 : 2013년 6월 20일 14:00 ~ 16:30까지

나. 투표장소 :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서울시 송파구 소재)

다. 투표시 본인여부확인 신분증 범위

☐ 회원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라. 개표장소 :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